

2009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위기를 기회로!” 과학기술인 새 각오 다져



글 | 과총 정책홍보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소망의 박'이 터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09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지난 1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과학기술인이 다짐한 새해 각오도 그 어느 해보다 각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 이후에 다가올 기회를 과학기술 투자로 준비하자”고 밝혔고, 과학기술인은 “경제난 극복에 과학기술인이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이기준 과총 회장 “10년 전 연구인력 감축, 반복하지 말아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기준 과총 회장은 “지금 세계 각국은 동시불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이후에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력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0여 년 전 IMF 위기 상황을 상기하며 “당시 어려움 속에서 연구인력과 연구개발투자를 줄였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춰야 하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절대적 사명을 위해 다함께 협동과 단결을 다짐하자”고 역설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예산 가운데 교육부문이 6% 증가한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16.9%나 증가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때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기조에 대해 “2008년에는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창조적 융합을 토대로 미래 비전 마련과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왔

는데, 올해에는 체계적인 과학기술 국정체제를 토대로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아무리 어려워도 과학기술 적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지원의 뜻을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대해 “위기 극복에만 전력하면 위기 이후에 우리는 뒤떨어질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기업에도 “당장 어렵더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될 연구개발 투자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녹색성장’과 관련해 “산업화나 IT나 여러 시대를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오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린 이코노미시대에는 어떻게 하든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점에서 과학 기술자들이 분발해야 하는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과학 기술인들이 해 나가는 일에 있어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줄이면서 과학자, 연구비까지 다 줄였다”며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어려울수록 과학기술 개발에 정진해야 한다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소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소도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들에게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2009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기준 과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새롭게 분발해야 하며, 정말 새롭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열려면 출연연구소가 앞장 서야 하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나라는 투자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다고만 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등의 모든 일들이 과학 기술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금년 한 해는 여러 분야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과학 기술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인류발전을 위해 새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인 다짐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과학기술인은 3인의 대표를 통한 신년 다짐을 발표하고 “경제 난

국 극복에 과학기술인이 앞장서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로 과학기술인을 대표해 신년 다짐에 나선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원로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과학기술발전 60년 역사에서 위기와 절박함이 곧 힘을 발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여 과거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및 젊은 과학기술인을 각각 대표해 신년 다짐을 밝힌 이공주북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와 김종호 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인을 대표해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 장관(원로 대표), 이공주복 이화여대 교수(중견 대표), 김종호 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젊은과학기술인 대표)이 신년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공주복 교수는 “국가 경쟁력, 특히 과학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장소는 이미 세계 각국의 정책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대학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우수 인재양성 및 활용 극대화라는 책무를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호 선임연구원은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연연 역시 새로운 조직과 미션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연구원들도 인정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학기술인연금제도, PBS 개혁 등 출연연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성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는 공중에 부착된 박이 터지면서 ‘경제위기 극복, 과학기술인이 함께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선을 보여 새해를 시작하는 과학기술인의 다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날 신년인사회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비롯해 채영복·박호근·권숙일·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등 과학기술인 800여 명이 참석했다. ㉮

신년인사회 개최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회장 이기준

먼저,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인을 격려하기 위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선배, 동료 과학기술인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우리 과학기술인의 강령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급격한 변화의 격랑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동시불황의 경제위기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총력체제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 이후에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력(R&D)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IMF의 어려움 가운데 연구인력과 연구개발투자를 줄였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이 명실공히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의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지난 40년 동안 밤을 낮 삼아 산업현장과 연구현장을 밝혀 온 과학기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애국심이 충만한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선두에서 이끌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우리의 절대적 사명, 그리고 이를 위해 다함께 협동과 단결을 새삼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온 힘을 모아 세계 속에 우뚝 선 21세기 선진 한국을 우리 과학기술인의 힘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신년인사회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전문)**

우선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과학기술계는 여러 면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시중 원로 과학자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화여대 이공주복 박사님과 젊은 과학자인 김종호 박사께서도 좋은 말씀과 또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준 회장님, 여성 재단의 김지영 박사님 등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에게 우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서 연말을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 2009년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하기가 좀 그리 선뜻 잘 나오질 않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조금 전 이기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IMF 외환위기 때에는 모든 것을 줄였습니다. 줄이는 것이 쉬운 과학자이고 또 연구비이고 하나까 줄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우면 어려워수록 우리 과학기술은 더 정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원로 과학자 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생애 이렇게 세계가 공히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년 이래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이렇게 일시에 어려운 것도 처음이었고, 세계에 그렇게 인재가 많고 전문가도 많은데 이렇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금융회사들이 내일 당장 위기에 빠지는데 오늘 외국에서 세미나 한다고 호화파티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모습을 보

면서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까지 참담한 금융위기를 하루 전까지도 예측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는 아시아,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몇 개 국가가 외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 지금은 비교적 아시아 국가들이 그레도 좀 나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전력을 쏟으면 위기 이후에 올 시대에 우리는 뒤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더욱 분발해야 되고 이럴 때 세계 우수한 과학자들을 오히려 한국에 오게 해서 힘을 더 보태고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위기는 어느 나라든 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끝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입장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고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 와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개인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하루 세 끼니를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 어떤 부모들은 그런 가운데도 자식을 공부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가정은 먼 훗날 차이가 났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도 연구 개발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또 국가도 물론 그러한 일들에 목표를 두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그런 이코노미, 소위 녹색경제시대에서 녹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가 모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선 국가가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철저히 하면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IT 시대를 맞이했고, 지난간 산업시대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천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일본하고 무역 역조가 300억 달러나 나고 있습니다. 무역 역조가 300억 달러가 나지만

일본에다가 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본이 그럼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류 회사들이 다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이 일본과 우리가 일본의 원천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일본이 여기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중국, 한국이 정상 회담을 할 때 특히 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우리가 300억 달러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본이 이번 기회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소 총리에게 한국에 흔자 오지 말고 기업인들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업인들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문제도 있고 하니 이럴 때에 일본 기업인과 한국 기업인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그린 이코노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원천 기술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한 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부는 거기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해 나가는 일, 이 일에는 우리가 평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원로 과학기술인이나 젊은 과학기술인 모두가 생각을 함께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도 이제 새롭게 분발을 해야 합니다. 정말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연구소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거기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또 미래를

열기 위해서 특히 출연연구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 나라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것만큼도 성과를 못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서로 그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잘하는 데를 본보면서 따라 갈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저탄소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과학기술인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이기려면 거기에 주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전부 과학기술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09년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한해는 여러 분야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시대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09년도 과학기술인의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걸 한 번 더 서로 다짐하고, 저 자신도 여러분 과학 기술인이 한번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걸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9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가시고 과학기술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